

이스라엘 '2단계 지상전' 돌입...이란 "레드라인 넘었다" 경고

네타냐후 "가자지구 지상 군사작전은 인질 데려오는 것이 목표" 이란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수 있다"...이·팔 전쟁 확전 우려 고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지상전이 본격화됐다. 이스라엘이 '전쟁 2단계'를 선언하면서다. 특히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본격 대응을 경고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 내 반서방-반이스라엘 성향 국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등 확전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밤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가자지구에서 시작한 지상 군사작전으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하마스에 잡혀 가자지구에 억류된 200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민간

인이 위협에 처했다는 비판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범죄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지상 작전 2단계 돌입 선언 속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작전 병력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加里 소장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밤사이 가자지구 진입 병력을 늘렸다. 그들은 기존에 들어간 병력과 합류했다"고 말했다.

하加里 소장은 이어 "가자지구 북부에서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계획에 따라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질 구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찰대원 그룹이 선 발됐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라디오는 남부 국경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가자지구의 한 터널 입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 간의 교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에브라힘 라иси 이란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온리스트(유대민족주의) 정권의 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иси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대립각을 끌어올리면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과 민병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 소위 '이란의 대리세력'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누적 사망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가자지구 주민들이 28일(현지시간) 중부 데이르 알발라흐에 있는 유엔 물품 배분 센터에 난입해 물건을 꺼내가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29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민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아 29일(현지시간) 앙카라 소재 '국부'(國父)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앞에서 주민들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에르도안 "팔레스타인 도울 것"

튀르키예가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았다. 309일 튀르키예 일간 데일리사바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국부'(國父)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묻힌 영묘 앞을 순회하며 참배했다. 튀르키예 공군 '솔로튀르크' 부대는 영묘 상공에서 에어쇼를 선보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영묘 방문록에 남긴 글에서 "이 지역의 전환점에서 각하와 당신의 동료들,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된 존경하는 열사와 참전 용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1년간 정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며,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공화국의 두 번째 세기를 '튀르키예의 세기'로 장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후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로 자리를 옮겨 대국민 연설을 통해 "튀르키예 공화국은 아타튀르크가 바라던 대로 역내와 세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의 수호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전에 한국, 키프로스,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그리고 카라바흐에서 이런 태도를 유지했다"며 "오늘은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으로 대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가자지구 어린이 3000명 넘게 희생...세계 분쟁지역 3년 사망자 넘었다

실종자 1000여명·부상자 6360명

3주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최근 3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숨진 아이들보다 많았다.

30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당국의 자료를 인용,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3257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희생자가 3195명에 달했다. 이는 적어도 지난 3년간 전 세계 20여개국의 분쟁지역에서 나온 연간 어린이 희생

자 수보다도 많은 수라고 지적했다.

또 가자지구에서 붕괴한 건물 등에 매몰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실종자가 1000여명에 달하며 어린이 부상자도 6360명에 달해 가자지구 내 어린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스라엘의 봉쇄로 연료와 의약품 등의 공급이 끊기면서 가자지구 내 병원 가운데 3분의 1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여서 다친 어린이가 사망할 위험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지난 3주간 이스라엘은 어린이 29명이 숨지고 74명이 부상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33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80명의 어린이가 부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자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자 가운데 어린이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전체와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어린이 희생자였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스라엘군(IDF)이 지상 작전을 확대하면 더 많은 어린이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 당사자들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50년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 아프리카인

아프리카 인구가 늘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 한 명이 아프리카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향후 25년간 아프리카의 인구가 2배로 늘어 25억명에 달할 것이며 이는 세계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1950년 당시 아프리카의 인구는 전 세계의 8%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 전망에 따르면 이보다 100년 뒤인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인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25년 뒤에는 전 세계 15~24세 청년층 중에서 아프리카인이 최소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아프리카 대륙의 중위연령은 19세에 불과하다.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의 중위연령은 28세이며 미국과 중국은 각각 38세다. /연합뉴스

추모 막아도...주목 받는 리커창 생전 발언

최고 권력 견제 발언 온라인 회자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물론 최고 권력을 견제하는 듯한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때문인지 중국 당국의 '조용함'과는 달리 현지 온라인에서는 그의 생전 발언들이 회자하고 있다.

28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네티즌들이 '양쯔강과 황하를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黃河不會倒流)는 리 전 총리 생전 발언을 공유하며 그를 추모하고 있다.

리 전 총리의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 발언도 사후에 재조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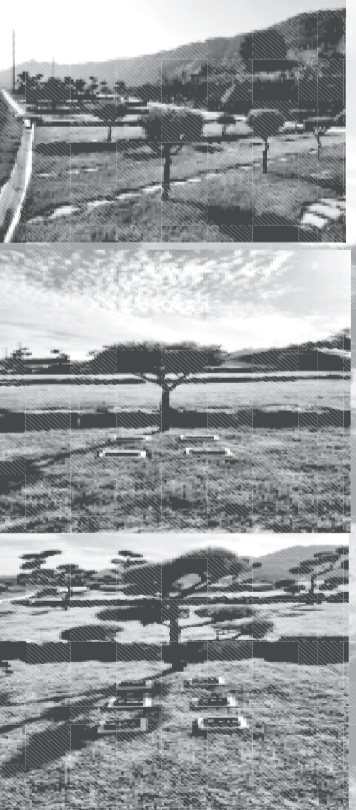
그는 당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명의 월수입은 1000 위안(약 17만원)"이라며 "이 돈으로는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 주석이 강조한 '샤오강(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히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3월 총리 퇴임을 앞두고 국무원 판공청 직원들과 작별 인사에서 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는 발언도 다시 회자한다.

당시 중국 전문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